

“전주 경제 중심지 팔복동 발전 최선”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팔복동 순방 추진... 시정 비전·운영 방향 공유·주민 의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산업단지가 위치한 팔복동을 강한 경제 전주의 심장부이자 주민들이 살기 좋은 터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범기 시장은 22일 팔복동 전주페이퍼 사무동 대강당에서 인근 주민과 시의원, 산단 유관기관 대표, 자생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위한 의견을 듣는 동순방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영상 상영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 우 시장은 참석한 주민들에게 민선 8기의 시정 비전과 2023년 시정 운영 방향,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우 시장의 이날 방문지인 팔복동은 전주시의 대표 산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지난 반세기 이상 전주 경제를 이



우범기 전주시장은 22일 팔복동 전주페이퍼 사무동 대강당에서 인근 주민과 시의원, 산단 유관기관 대표, 자생단체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끌어온 곳이다. 여기에 현재 탄소 국가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강한 경제 전

주를 이끌어갈 산업·경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김영태 기자

팔복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 공원 조성 △팔복로 남양아파트 앞 도로개설 △서곡광장~추천대교 간 버스노선 추가 △전주 탄소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는 이날 주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변혁의 꿈을 꾸고,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그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오는 제안해주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전주 경제를 이끌어온 중심지인 팔복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개소식 가져

아동학대 근절·보호 '앞장' ... 서전주로터리클럽, 취약계층 아동보호 위해 4043만원 상당 성금 기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22일 김인태 전주시장과 이병하 부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원, 김용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해 7월 임시로 문을 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서신동 소재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아동보호 업무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이전 개소식은 테이프 커팅식과 경과보고, 인사말, 기념전달식, 라운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서전주로터



전주시는 22일 김인태 전주시장과 이병하 부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원, 김용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가졌다.

리클럽이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4043만 원 상당의 성금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이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받은 아동의 심리회복을 돕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및 아

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송천동에 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했으며, 아동보호체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에는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해 단일 시·군으로는 최초로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수탁 운영하며,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사 등 14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 기존사업과 더불어 아동학대 발생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등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운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한층 견고해졌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아이를 보호하는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엄익준 완산구청장, 농업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과 22일 전북농협 본부에서 완산구 농업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엄익준 청장, 김영일 본부장 및 관계자들은 관내 농업경제 순환 현황을 공유하고 다른 시·군의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며, 농업경제 부양 방안

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김영일 본부장은 “완산구 내 농업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발로 뛰는 엄익준 완산구청장님께 감사하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우리 구의 상황과 타시군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 농업경제의 순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책·문화예술 공존’ 금암도서관

3월 7일부터 ‘도서관 내 미술관’ 프로그램 연중 운영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이 책과 독서뿐 아니라, 문화예술도 향유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된다.

전주시는 오는 3월 7일부터 금암도서관에서 지역작가의 미술 작품 전시와 미술 교양 강좌, 북큐레이션으로 구성된 ‘도서관 내(내) 미술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책,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공공도서관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금암도서관은 오는 3월 7일부터 시작되는 광정우 작가의 서양화 전시와 3월 11일로 예정된 연계 강좌를 시작으로 매월 새로운 작가의 작품 전시 및 연계 미술 강좌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암도서관은 또 시중 일반서점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국내의 아

트북 등 독특한 매력의 미술 서적을 전시하는 월별 북큐레이션도 준비하고 있다.

김병수 시 도서관분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알릴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주시민 모두가 문화적으로 보다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암도서관에 전시되는 미술 작품은 1층 로비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으며, 매월 1회씩 진행될 미술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의 ‘프로그램접수’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양은경 기자

“전북도, 특별활동비 지원 형평성에 맞춰야”

만 18개월~3세 미만 영아 학부모들, 반발·촉구

전북도가 이달부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인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

“특별활동비”는 표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육교직원이나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규정인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8개월부터 영아도 학부모의 요청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만3세~5세의 어린이들에 한해 유치원 13만5,000원, 어린이집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만 18개월부터 3세미만의 어린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도내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아 학부모들은 만 3세부터 지원하는 필요경비 수납액을 18개월 이상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또한 특별활동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부모들이 부담없이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화물차 사고예방 합동단속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와 함께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22일 오전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TG를 통해 진행된 합동단속은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한 ‘화물차 적재불량, 브레이크 후미등, 타이어 파손 정비불량, 화물고정도구(판스프링 등) 불법개조, 안전띠 미착용’ 위주의 중점 단속을

하며 사고예방 홍보까지 함께 펼쳤다. 9지구대는 사고원인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테이프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 사고다발 구간에서 졸음운전 예방 위한 알람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효관 9지구대장은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장시간 고속도로 운행시 충분한 휴식과 적재화물에 안전 점검 등 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